

원양어업 생산동향 [2021.8.]

■ 어종별 생산동향

- (전체) 원양어업 전체 8월 생산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3.2% 감소
- (참치류) 선망선 참치류 8월 생산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2.2% 감소, 연승 참치류 8월 생산량은 7.1% 감소
- (오징어) 오징어 8월 생산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약 83배 증가
- (명태) 명태 8월 생산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26.1% 증가
- (꽂치) 꽂치 8월 생산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약 25배 증가

(단위 : 톤)

구분	평년(5년) 누계(1-8.)	2020년		2021년		전년대비 증감(당월)
		당월(8월)	누계(1-8.)	당월(8월)	누계(1-8.)	
합계	307,555	36,622	304,510	35,457	333,887	△3.2%
참치류	선망	184,508	20,913	172,592	20,450	△2.2%
	연승	23,340	2,866	24,700	2,663	△7.1%
	소계	207,849	23,779	197,292	23,113	△2.8%
오징어	27,755	3	34,567	249	66,370	8200.0%
명태	11,519	4,600	13,929	5,799	13,726	26.1%
꽂치	5,937	2	1,361	50	2,490	2400.0%
기타	54,497	8,238	57,361	6,246	53,068	△24.2%

■ 주요 수역별 생산동향

- (태평양) 선망어업 8월 생산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10.6% 감소하였으며, 연승어업 8월 생산량은 3.0% 감소, 북양트롤어업 생산량은 25.6% 증가, 봉수망어업 생산량은 약 25배 증가
- (대서양) 채낚기어업 8월 생산량은 없으며, 원양트롤어업 8월 생산량은 12.7% 증가
- (인도양) 선망어업 8월 생산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약 10.6배 증가하였으며, 연승어업 8월 생산량은 48.7% 감소
- (남빙양) 저연승어업 8월 생산량은 없으며, 원양트롤어업 8월 생산량은 전년 동기간 대비 48.0% 감소

(단위 : 톤)

구분		평년(5년)	2020년		2021년		전년대비
주요수역		누계(1-8.)	당월(8월)	누계(1-8.)	당월(8월)	누계(1-8.)	증감(당월)
합계		307,555	36,622	304,510	35,457	333,887	△3.2%
태평양	선망	172,866	20,733	164,457	18,537	163,761	△10.6%
	연승	20,811	2,610	22,367	2,532	21,038	△3.0%
	북양트롤	11,558	4,616	13,950	5,800	13,791	25.6%
	봉수망	5,937	2	1,361	50	2,490	2400.0%
	기타	7,472	733	4,552	704	2,194	△4.0%
대서양	채낚기	15,638	0	15,517	0	50,176	-
	원양트롤	21,938	2,954	26,266	3,330	26,069	12.7%
	기타	2,665	427	2,627	321	2,147	△24.8%
인도양	선망	11,643	180	8,137	1,913	11,810	962.8%
	연승	1,920	228	1,761	117	1,451	△48.7%
	기타	0	0	0	0	0	-
남빙양	저연승	431	0	556	0	963	-
	원양트롤	34,677	4,139	42,960	2,152	37,997	△48.0%
	기타	0	0	0	0	0	-

■ 어가 동향

○(참치류) 가다랑어 8월 어가는 전년 동기간 대비 6.0% 상승, 눈다랑어 어가는 12.5% 감소, 황다랑어 어가는 12.6% 감소

○(오징어) 오징어 어가는 전년 동기간 대비 22.9% 상승

○(명태) 명태 어가는 전년 동기간 대비 25.7% 상승

○(꽂치) 꽂치 어가는 전년 동기간 대비 220.8% 상승

(단위 : 생산단가, 원/kg)

구분		2020.8.	2021.8.	전년대비 증감(당월)
참치류	가다랑어	1,374.6	1,457.3	6.0%
	눈다랑어	8,063.6	7,051.9	△12.5%
	황다랑어	3,071.7	2,684.3	△12.6%
오징어		4,834.2	5,941.7	22.9%
명태		1,143.0	1,437.0	25.7%
꽂치		1,503.0	4,822.0	220.8%

※ 원양어업생산동향 월보 집계 결과는 잠정치이며 향후 통계확정 시 정정될 수 있음.